

01 교회소식

모바일로 만나는 은혜의 세계

우리 교회에서 제작된 다양한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신앙생활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02 생명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2)

주일을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일터를 지키고 축복해 주시니 옛 새 동안 일해도 칠일 또는 그 이상 일한 것처럼 소독을 거둘 수 있다.

03 기획특집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듯 교회 안에서도 머리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각 지체가 하나 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이뤄진다.

04 간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

하나님의 은혜로 일터에 축복이 끊이지 않는 정준환 장로와 손수건 기도로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은 몽골 수렌체체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775호 2017년 2월 12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믿음 더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손 안에...

“모바일 앱 활용해 스마트하게 전도해 볼까요?”



미디어와 IT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바일 선교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는 모바일을 통해 말씀을 무장하고 예배와 기도회에 함께하며,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각종 자료와 함께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앱을 제작하여 선보이고 있다.

우리 교회 전산실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 다양한 간증과 만민찬양, 각종 뉴스 등을 멀티미디어 서비스(VOD, MP3, 오디오, 텍스트 등)로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신앙성장은 물론, 전도와 선교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한 주에도 전국 및 전 세계에서 접속자가 수십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간증 및 감사의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만민 전도 화보집’ 앱에는 세계적인 포털사이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

자 10인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선정한 뉴스를 비롯, 우간다·파키스탄·인도·미국·이스라엘 등 14번의 해외 연합대성회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각종 기사(奇事), 국내외 성도가 체험한 갖가지 치료 역사와 사고나 재앙에서 보호받은 간증, 권능의 ‘무안단물’, 전국 지교회 주수와 해외 지·협력교회 현황 등 전도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풍성히 담겨 있다.



‘WCDN’ 앱(한국어, 영어)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된 사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전 세계 기독교의 사들의 모임인 WCDN(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 소개와 아울러 설립자인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치료받은 수많은 간증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치료 간증이 암, 당뇨, 고혈압, 디스크, 화상, 불임, 에이즈 등 다양한 병명과 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혈관, 소

화기, 피부, 유전자, 중추신경계 등 질환별로 자세히 분류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만민중앙교회’ 앱에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골고루 들어 있다.

성경과 찬송가는 물론 각종 설교와 찬양이 VOD(동영상)로 수록되어 있으며, 요약된 설교 텍스트가 제목과 날짜별로 꼼꼼히 업로드 되어 있고, 제목으로 검색해 설교 텍스트를 찾아 읽을 수 있어 말씀무장에도 용이하다.

또 일간지와 교계신문, 시사뉴스에 게재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 신앙칼럼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성도들의 일목요연한 간증을 읽을 수 있으며, SNS를 통해 전도할 수 있는 만민뉴스레터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교회 안내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GCN 방송’ 앱을 통해서 해외 170여 개국에 송출되는 순수복음방

송 GCN방송의 차별화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으며, 생방송으로 우리 교회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고, GCN방송 프로그램 편성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찬양을 제공하는 ‘만민 찬양’ 앱은 1~5집 앨범에 실린 곡들을 MP3로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228곡의 가사를 볼 수 있으며, 악보는 인증절차를 거친 후에 볼 수 있다.

위의 앱들을 활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Play 스토어’ 아이콘을 클릭한 후 해당 단어를 검색한 뒤 ‘설치’ 하면 된다.

전국 및 전 세계 어디서든 손쉽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바일 앱과 함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길 기대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2)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한 대로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가장은 일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가정주부는 부지런히 가사를 돌보며,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이런 세상일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 구별되어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2.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안식일에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종, 육축, 손님이라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권한 아래 있는 모든 분야를 쉬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일에는 모든 세상일을 일체 쉬므로써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때 하나님께서 일터를 지키고 축복해 주시니 옛새 동안 일해도 칠일 또는 그 이상 일한 것처럼 소득을 거둘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체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광야 생활로 인해 양식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옛새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의 양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원래 만나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신기하게 안식일까지 남겨두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지요. 더러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시니 거둘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안식일을 제외한 6일만 양식을 거두어도 7일 분량을 넉넉히 주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우리의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만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열심히 일

한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지 못하니 수입이 줄거나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등을 만나 지출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3.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데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들

구약시대와 달리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예전과 달리 서비스업, 유통업, 미디어 산업 등 종사하는 직종도 다양하여 주일을 지키는 모습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 중심’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에 맞게 지키면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 해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을 마음 중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죄 있다 하지 않으시지요.

또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주십니다. 초신자들은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그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일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군인이나 경찰, 의사, 간호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 근무하지 않고 온종일 교회에서 보낸다면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며, 환자들은 치료받을 수 없지요. 이런 경우는 근무 시간을 피해 주일예배를 드리되 가능하다면 지체롭게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2) 유통업, 요식업에 종사하는 경우

우리 교회에는 주일에도 문을 여는 백화점이나 음식점 등에 종사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퇴근 후 모여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 스스로 주일을 온전히 지키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게가 입주해 있는 백화점이나 소속된 본사의 방침에 따라 주일에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믿지 않는 사람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회사 일로 주일에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

주일을 끼고 출장을 가거나 연수를 다녀와야 할 때는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늦게라도 예배를 드리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주일에 국가고시 등 중요한 시험이 치러지는 경우

시험을 본 후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되 휴여 시간이 안 된다면 불가불 토요일을 안식일로 마음에 정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예배드리거나, 상황에 맞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만일 운동선수가 주일에 경기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가능한 시간에 잘 알아서 행하면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의 범위를 넓혀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환경에 순응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참된 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하며,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새 힘과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천국 소망이 넘치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되 주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
 (출애굽기 20:8~11)

하나님께서서는 출애굽을 앞두고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으로부터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심같이, 오늘날에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갖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지난 호에 이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깨우쳐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세상일을 하지 않고 영적인 안식을 누리야 합니다

안식일은 세상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몸 된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10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일’을 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는 등 자기 유익을 위해 하는 사적인 일들을 통틀어 말하지요. 물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비결!

주님의 몸 된 교회에는 각기 다른 재능과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지체들이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들이 영적인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서로 지체의 소중함을 깨달아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모든 분야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섬김의 마음

인체는 머리, 눈, 코, 입, 귀, 손, 발은 물론, 심장, 폐, 뇌, 위장, 간 등의 기관이 서로 다른 모양과 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고 고유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처럼 주님의 몸 된 교회에도 각각의 사명을 가진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열심이 앞서 상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뜻을 굽히지 않거나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한다. 또 마땅히 협력해야 할 사람들이 뜻과 생각이 맞지 않는다 하여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마치 자신이 혼자 다 한 것처럼 공을 내세우지만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 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만일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다면 성령의 뜻을 거스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야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회복할 수 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한 만큼 성령의 역사가 막히고, 때로는 원수 마귀가 틈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섬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같이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진정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일어나 빛을 발하여 다 함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빌 2:2~4).

무엇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 안에서도 각 지체들이 머리 되신 주님(엡 1:22)을 중심으로 하나 될 때만이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나님 일을 이룰 때 개인의 유익보다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더 좋은 편을 택해 나가야 한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질서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조화를 이뤄가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 가운데 열심을 내어 충성한다 하지만 그 일을 이뤄가는 방향이나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과 주관, 인도를 정확히 받는다면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화평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틀 속에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할 때는 하나 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게 되고 불순종을 낳은 만큼 하나님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 자신이 노력한 정도밖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큰 손실을 입힐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보기에 옳은 길을 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주 안에서 질서를 좇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한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한다.

모든 지체가 협력함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랑

각 지체가 그 은사대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힘이 될 때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온전히 서게 된다. 모든 지체가 협력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때야 아름답게 세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결코 분쟁이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지체를 미워하고 시기한다면 이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모두 자신의 유익만을 구한다면 조그만 일에도 불평불만이 나오고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로 방해 받게 된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26~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셨다. 만일 가시가 발뽀꿈치에 박히면 온몸이 아픔을 함께 느끼고, 머리가 면류관을 쓰면 그 사람 전체가 영광을 받는다. 이처럼 모든 지체가 하나이니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 즐거움도 어려움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롬 12:15). 무엇이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3~4절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신 대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하나 되는 것이 곧 축복의 지름길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성취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온전히 한 몸을 이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이뤄가야겠다.



<p>2 2017 2017.2.12~2.18 주요프로그램안내</p>	<p>이재복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하나님만 선 12-17 지옥 16-17 성경적 결혼관 1 일곱 영 2-3 육체의 결여 2-6 창세기 강해 95-101 신앙생활 쉽게하기 1-2 온전한 심일조와 한물 21-24 	<p>GCN TV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화의 힘(이수진 목사) 위엇것을 생각하라(이미영 목사) 영의 세계 33(이희선 목사) 선 2(신동초 목사) 열 재앙 36(정구영 목사) 중심의 사모함(조수열 목사)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다시해보기) 12 견능 스페셜 3 창조와 과학 5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72 내 마음의 찬양 36 모두 드려요 47 마지막 때 7 English 12 	<p>해외성회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상 2 페루 연합대성회 2 믿음으로 걸어온 길 32 <p>GCN TV 채널 ktolleh tv 882번</p>
---	--	---	--	---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저는 테이프와 책자 등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7년 12월부터 아내 김혜경 권사와 함께 만민중앙교회 양 떼가 되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성경 말씀대로 사시는 당회장님의 모습을 보며 저도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강원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한 저는 관련분야에서 13년간 일하다가 더 전망 있는 일을 찾던 중, 2007년 8월 양돈종합컨설팅업체인 정 P&C연구소에 입사하였지요.

그 뒤 10년이 되는 올해 초, 동물 방역위생시책 추진과 축산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지사 동물방역 유공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준환 장로 (53세, 3대대 28교구)

하였지요. 2011년 우리나라에 구제역(FMD)이 발생,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약 300만 마리의 가축이 매장되었습니다. 종돈이 턱없이 부족한 시점에서 저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인도받아 종돈을 약 6천 마리나 수입해 올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회사에서 공을 인정받아 이사로 승진하는 축복을 받았지요.

그러던 2014년, 제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영적 성장이 더딘 저를 안타까워하시며 “돈만 벌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어떡해요.” 하고 사랑의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눈물로 회개하고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기관장, 구역장의

사명을 회복하며 충성해 나갔고 말씀 무장을 통해 나를 발견하며 성결을 이루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인 충만함을 되찾을 수 있었지요.

2016년 가을, 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가 창궐하여 3천만 마리가 넘는 닭이 살처분되는 사태를 지켜보던 저는 ‘2011년 구제역 때와 같이 예비하신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당회장님께 계란과 병아리 수입에 대해 여쭈었지요. 이때 당회장님께서 “똥으세요!”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미국산 계란을 수출하는 미국업체와의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1월 8일, 미국산 계란을 수입하여 국내 유명마트에 판매함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국내산 계란 값 안정에 일조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이처럼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자의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매순간 행복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길을 열어주셨고 위기도 기회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셨지요. 저는 출장이 잦고 업무량이 많을지라도 매일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항상 선한 업무처리가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입사 후 종돈수입 업무 외에도 축산물 HACCP(해협: 위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체계) 관련 업무를 개발하여 회사에서는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저희 회사가 컨설팅 우수업체로 선정되었고 저는 축산물위생교육원, 농업기술센터 HACCP강사, 대학교 강의 등에 초청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지도할 때면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가슴에 품고 정성을 다하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니 업무할 때 아이디어도 주시고 술자리 같은 곳에 같이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사되는 행통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든 당회장님께 말씀드리고 기도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도

“손수건 기도로 모든 질병을 치료받았어요!”

슈렌체체 성도 (74세, 몽골만민교회)



▲ 아들과 함께한 슈렌체체 성도

저는 세 차례나 뇌졸중으로 쓰러져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는 갑상선질환으로 호흡곤란 증세까지 나타났지요. 숨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숨이 막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없었고, 자다가도 6~7차례나 잠에서 깨어나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피부 알레르기까지 생겨 고 통은 더욱 가중되었지요.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중, 아들을 통해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권능의 종에게 기도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2015년 2월, 아들의 전도로 몽골만민 교회에 다니게 되었지요.

그해 12월 2일, 집에서 키우는 개가 갑자기 제게 달려오는 바람에 그만 놀라 넘어지면서 제 오른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의사는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김스만 하고 병원에서 나왔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치료받고 싶었기 때문

입니다. 이후 저는 금식하고 회개하며 예배 때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으며, 권능의 무안단물(출 15:25)을 마시고 받았습니다.

2016년 1월, 교회에서 손수건 집회(행 19:11~12)가 열려 담임 발저릭 선교사님이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순간 제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통증이 사라졌고 팔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졸중도 치료받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말도 잘할 수 있게 되었지요. 4월 손수건 집회에서는 호흡 곤란과 피부 알레르기까지 치료받아 온몸이 강건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2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이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